



Aboard Event_ NetEvents 2006 Global Press Summit

조사에 협조해야만 한다. 하지만 산업 스파이, D 절도 및 사기를 노리는 공격자들은 도구를 이용해 암호화를 풀고, 데이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통신 장비 제조업체나 캐리어들만 경쟁 및 기술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들 또한 범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요소가 사업 계획 및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민감할 것이다.

사회를 맡은 벨레콤TV의 마틴 워윅(Martin Warwick) 에디터는 "지난 5년간 미국의 자유시장주의는 언론과 월드컴 사기사건 등으로 큰 손상을 입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모두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주목하게 됐다. 이제 IT범죄는 살인자와 견줄만한 죄악으로 강요에서 보내진다. 최근 미국 사베인옥슬리 법안을 모델로 한 규제법이 다른 국가에서도 제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오 첸(Leo Chan) 쓰리콤 티핑포인트 홍콩&타이완 지역 매니저는 "연준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회사의 간부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서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개인용 PC에도 중요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제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많은 해커들에 의해 상업 기반의 데이터를 침해하는 디지털딜레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관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 왔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한다. 디지털기술의 관련은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보호하느냐에 달려있다. 앞으로의 보안은 막대한 인적 목적의 인간을 막는다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메트로 이더넷의 고성장세

세 번째 세션은 메트로 이더넷 포럼의 난 첸(Nan Chen) 회장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한 새로운 최신 기술과 메트로 이더넷 포럼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메트로 이더넷 포럼은 100번째 회의로 ARRS를 맞이하며 2006년 한해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했다. 메트로 이더넷 포럼은 기존 업계의 경지와 기술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장비, 그리고 기술 벤더를 포괄하는 비영리 국제 기구다. MEF의 회원은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최근 통신은 물론 케이블 업체까지 가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멀티 서비스 포럼(Multi Service Forum) 로저 워드(Roger Ward) 대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NGN 상호 운용성에 대한 중요성 발표가 이어졌다. 워드는 "현재 모든 IMS 구현이 우리가 규정한 통신 구성에 완전히 호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6년 10월 27일 종료된 MSF의 국제적 호환성 테스트 GM1 2006에서 우리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돼 놀랐다. IMS 자체는 거의 '플러그 앤 플레이' 수준으로 설정 및 구성으로 인한 지연시간이 거의 없었고 호환에 대한 유일한 문제점은 IMS 사양

02. 레자 자파리(Reza Jafarsi) ITU 텔레콤 월드 2006 자문위원 겸 부위원장
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기술은 지구촌을 접목해 좁은 범위의 작은 세계로 만들고 있다. 이 기술은 우리의 미래이며 향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03. 이번 행사에는 캐리어들의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보안 이슈,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한 새로운 기술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04. 로라 허워드 ECI텔레콤 CMO는 "사용자의 컨텐츠 즉 TV 전성표, 그의 사진이 중앙 서버에 저장돼 있다면 또는 사업자가 개인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를 공급할수록 사용자가 통신사를 옮기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